

AI 예방활동에 전력을...

- 의심축 발견시 방역당국에 신고 당부-



▲ 장기윤 팀장

1979 서울대학교 수의학(학사)
1991 건국대학교 수의공중보건학(석사)
1980-1983 한국동물약품협회 근무
1983-2007 농림부 기술서기관(가축방역, 축산물위생)
1995-1996 미농무성 파견(HACCP 및 수입위험분석)
2002-2005 국제수역사무국한국대표단(수석대표)
2007.7-2008.9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호남지원장
2008.9-현재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장

양계 질병방역 정책의 산실인 농림수산 식품부 동물방역팀은 해마다 찾아오는 AI 유입방지는 물론 양계질병 예방을 위해 오늘도 심 없이 노력하고 있다. 본고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동물방역팀을 이끌고 있는 장기윤 팀장을 찾아 양계질병 정책 등을 담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장기윤 팀장은 서울대학교와 건국대학교에서 수의학 및 수의 공중보건학을 전공하고 1980년 한국동물약품 협회에 근무한 바 있다. 1983년부터는 농림수 산식품부에서 가축방역과와 축산물위생과에서 근무하면서 HACCP 및 수입위험분석을 위해 미농무성에 파견근무하고 국제동물위생규 약 개정을 위해 국제수역사무국 한국대표단 수석대표를 맡는 등 국·내외적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난 2007년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호남지원장을 거쳐 지난해 9월 농림 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장을 역임하고 있다.

AI 예방이 양계 핵심 과제

양계 질병방역의 금년도 핵심 추진사항은 무엇보다도 지난해 4~5월 AI 발생으로 가금 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고병원성 AI 재발방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그에 따른 상시방역체계를 지

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장기윤 팀장은 고병원성 AI의 재발방지와 청정화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양계산업의 발전과 미래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고병원성 AI 재발방지의 확고한 방역기반 위에서 가금 티푸스와 뉴캐슬병 등과 같은 양계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양계질병의 방역대책을 병행해 나갈 뜻을 밝혔다.

AI 재발방지를 위하여 작년 7월부터 능동적 사전예찰 중심의 연중 상시방역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1월과 12월 사이에 우리나라 인접국가인 중국, 태국, 홍콩 등에서 AI가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AI 상시방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밝혔다.

가금티푸스, ND 등 방역대책 추진

장기윤 팀장은 동물방역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계질병대책으로 가금티푸스와 ND 방역대책을 꼽았다. 가금티푸스는 '90년대 말 이후 양계농가에 많은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삼계(일명 백세미) 관련농가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삼계용 씨알 생산농가 및 삼계사육농가의 경우 대부분 사육환경이 열악하고 질병통제 능력이 부족하여 동 질병의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금티푸스 근절방안을 중점적으로 마련하여 시행 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뉴캐슬병 방역대책으로는 정부에서 ND 예방약을 부화장(720백만수분)과 양계농가(650백만수분)에 전액 지원하여 예방접종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실시를 통한 발병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지원에 비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따라서 부화장 및 양계농장에 대한 예방접종 실태, 방역실태 등을 점검하여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ND 방역대책의 문제점 등을 재검토하여 개선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시사했다.

또한 제주도에 대하여는 ND 청정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ND 청정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타 마이코플라즈마병 등 다른 가금류 질병에 대해서도 예방약 공급 및 검진 등을 통하여 발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역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AI 의심축 발견시 즉시 신고를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AI로 인해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 총 3,07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장기윤 팀장은 AI 의심축이 발견되면 은폐나 불안에 떨지 말고 신속하게 방역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에서는 AI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통해 농가를 보호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는데 정부의 AI 보상대책으로는 발생농가 및 지역에 대하여 ①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을 쇠가의 100%를 지급하고 있으며, ② 살처분 등에 따른 가계수입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수익 재발생시 까지가계비 등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③ 가축 미입식 및 출하 지연에 따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며, ④ 살처분 농가 등에 대해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마리수 비용인 가축입식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⑤ 이동제한 농가 등에 대하여 정부수매를 실시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AI 재발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의 차단방역으로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농장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모든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출입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AI의 국내 유입방지는 정부와 축산농가 및 학계 등 모든 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할 때 지켜질 수 있으므로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